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9월 20일(금)

윤석열 대통령, 체코 두산스코다파워 방문

-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
- 원전 산업 생태계 주요 분야 13개 협력 MOU 체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20, 금)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社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社를 방문했습니다.

플젠市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하여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산업부 간 원전 협력 MOU, 체코 원전사업 터빈 공급 확정 MOU, 한-체코 원자력 기술 MOU, 원자력 협력센터 설립 MOU, 체코 원전사업 기자재 현지화에 관한 MOU

특히,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오늘 협약식에서 내년 3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체코 신규 원전에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오늘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습니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 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늘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어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끝>